



VIDO Monthly Report

*Dec.*

## 12월 VIDO 월간 레포트

VIDO  
Report는

미디어아트 트렌드와

새로운 미디어아트 콜렉터

그리고 미디어 캔버스를 채워가는  
아티스트 및 크리에이터를

소개해드립니다.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진 12월입니다.

추워지는 날이니만큼 항상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12월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연말인만큼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많은 미디어아트 행사들도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D - Tom

# 12월의 VIDO Report 키워드 및 요약

## I Media Art Trend

12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 I 'VIDO's New Collector'

'아베크 청담'

## I 이달의 작가 / 작품

'Paige Hwang' / <The Hottest Summer>

## I 'Hello Artist'

'Hello Artist' - 'Yeong'

# Media Art Trend

Media Art Trend

## 12월의 미디어아트 이슈

### (1) 2022년, 전시 관람은 전반적으로 증가한 추세

2022년, 코로나가 고착화 되어가고 있는 엔데믹(Endemic) 상황에서 전시를 찾는 관람객들이 증가했습니다. 2021년과 비교하면 티켓 판매액은 47%, 관람객은 33% 증가했다고 해요.

원문 보기

### (2) AI가 만들어내는 미디어를 통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합성 미디어(Synthetic Media)'입니다. 가상의 인플루언서가 생겨나고, AI로 만든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들이 대중들에 의해 유통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혼재되어 있는 가운데, 미래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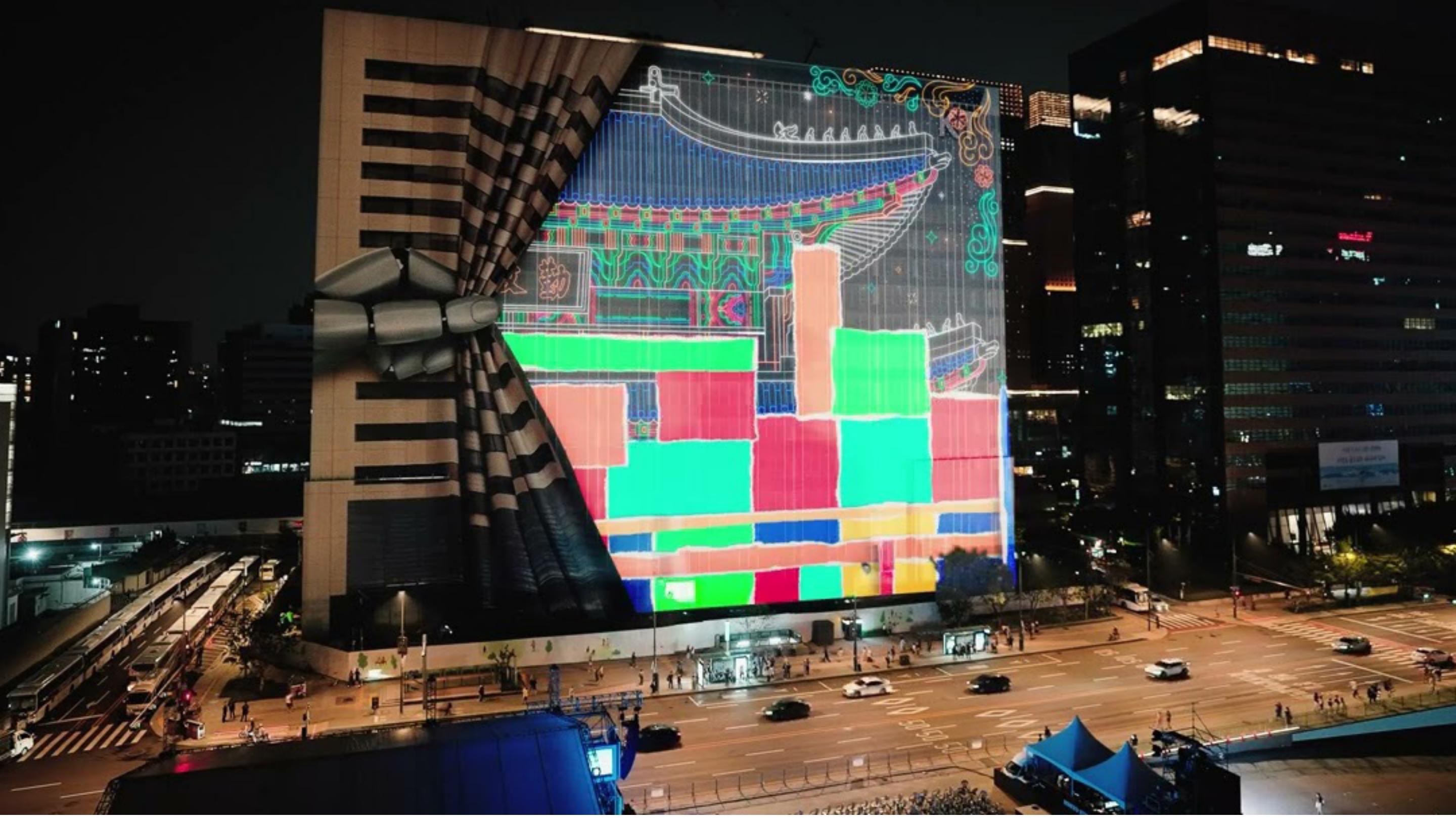
원문 보기

# Media Art Trend

**연말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



LED 디스플레이 미디어 파사드 / 신세계 백화점 (출처 : 디파 유튜브)



프로젝션 맵핑 미디어 파사드 / KT (출처 : KT 유튜브)

연말을 맞아 장소 곳곳에서 크리스마스/연말 콘텐츠를 다양한 건물에 상영하고 있습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추운 날씨지만, 화려한 콘텐츠가 보이는 장면에 잠깐 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다양한 브랜드, 기업들이 서로 앞다투어 진행하는 이 콘텐츠는 뭐라고 할까요? 바로 '미디어 파사드 (Media Facade)'입니다. 미디어(Media)는 흔히 통용되는 의미인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파사드(Facade)는 '건축물 외부에서 먼저 인식되는 중심부/입구'를 가리킵니다. 이 둘을 합쳤을 때 미디어 파사드(Media Facade)는 '건축물 외부, 시선이 먼저 닿는 곳에 보이는 다양한 사진, 영상 등의 콘텐츠'를 의미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미디어 파사드 방식에는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과 LED 패널을 이용한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맵핑은 빔 프로젝터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조합하여 건물 파사드에 미디어를 투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사이니지는 건물 외부에 LED 패널들을 설치하여 하나의 디스플레이를 만든 후, 이곳에 콘텐츠를 상영하는 방식입니다.

VIDO는 전용 플레이어와 많은 미디어아트가 있기에, 디스플레이와 컴퓨터만 있다면 어디든지 미디어아트를 전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vido.gallery](http://vido.gallery)에 방문해보세요.

# VIDO's Collectors

VIDO's Collector

## '아베크 청담'

Avécque

CHEONGDAM



12월 소개해드릴 VIDO's Collector는 '아베크 청담'입니다. 압구정로데오역 5 번 출구에서 조금만 가면 화려한 파사드로 맞이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곳은 18세기 프랑스의 살롱문화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인 사교문화를 추구하는 컨셉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간 곳곳에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과 미디어 캔버스가 있어 컨셉의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킵니다.



해상도는 3840x960px이며 키워드는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에 맞춘 Black, (Dark)Green, Elegant, Atmospheric, Sensuous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과거의 살롱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미디어아트를 제공합니다.

VIDEO는 콜렉터분들을 위해 매월 상황에 맞는 작품들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공간 디자인을 고려해서 콘텐츠 큐레이터를 통해 작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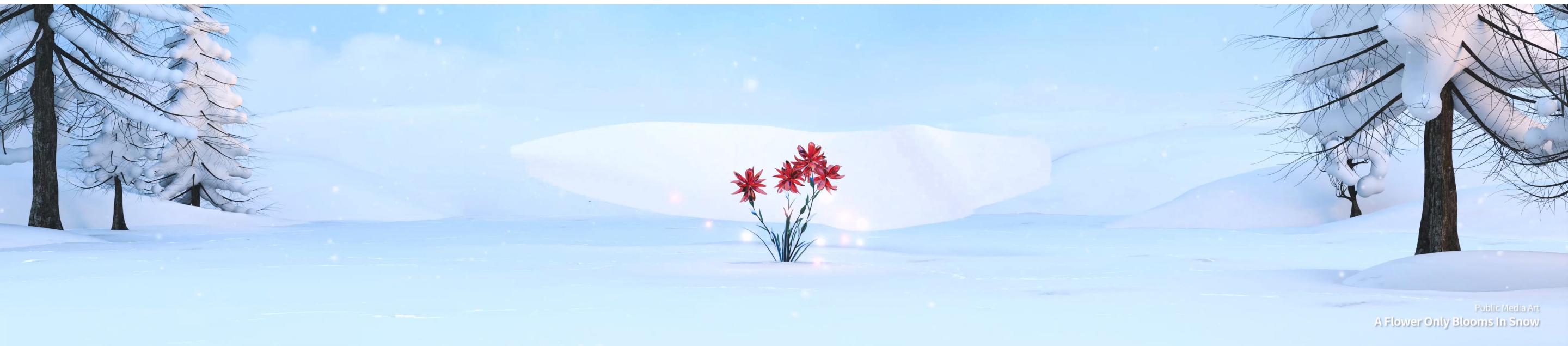
# VIDO's Artist

이달의 작가 + 작품

## 'Paige Hwang' <The Hottest Summer>



VIDEO에서 선정한 이달의 작가는 3D 비주얼 아티스트 'Paige Hwang'입니다. 작가는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요소들을 상상의 공간에 놓음으로써, 본인만의 세계를 펼쳐냅니다. 그 세계는 이질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보단 책 속의 이야기처럼 편안한 장면으로 구성되는데, 작가는 이러한 주제를 '문학적 디지털 아트'로 칭하고 있습니다.



Paige Hwang, <A Flower Only Blooms In Snow>, 2022, 단채널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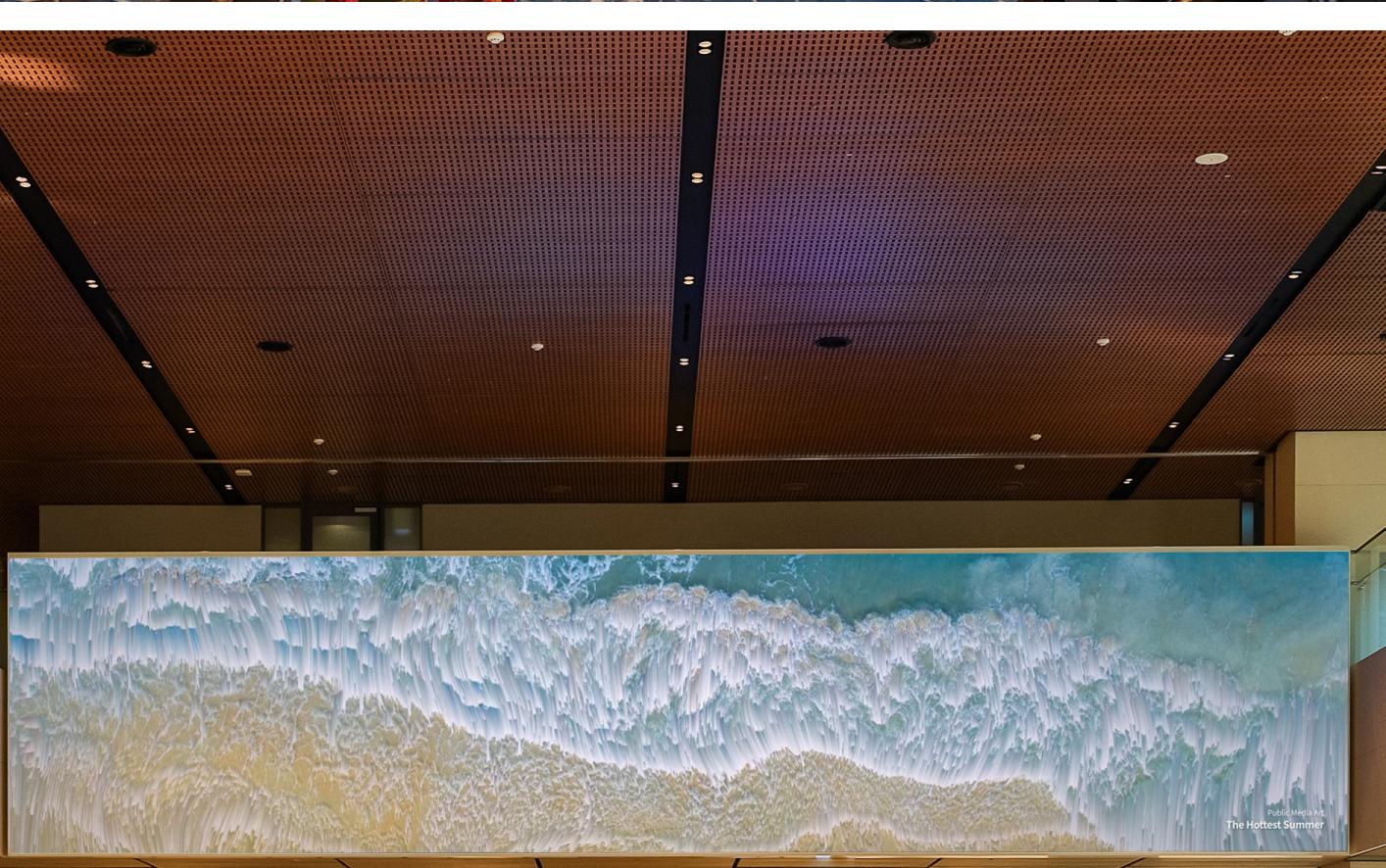
Paige Hwang, <Don't Starve>, 2022, 단채널 영상



Public Media Art  
The Memory Exhibition

Paige Hwang, <The Memory Exhibition>, 2022, 단채널 영상

이달의 작품인 <The Hottest Summer>는 무더운 여름 햇살이 만들어내는 풍경들을 바다를 통해 보여준 작품입니다. 무엇이든 녹일 수 있을 것 같은 햇살의 강렬함을 떠올리며 '바다가 녹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을 바탕으로 제작한 2D 작업입니다. 처음은 일반적인 바다의 풍경을 보여주지만, 파도의 움직임은 곧 하나의 커다란 빙하가 녹는 듯한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Hello Art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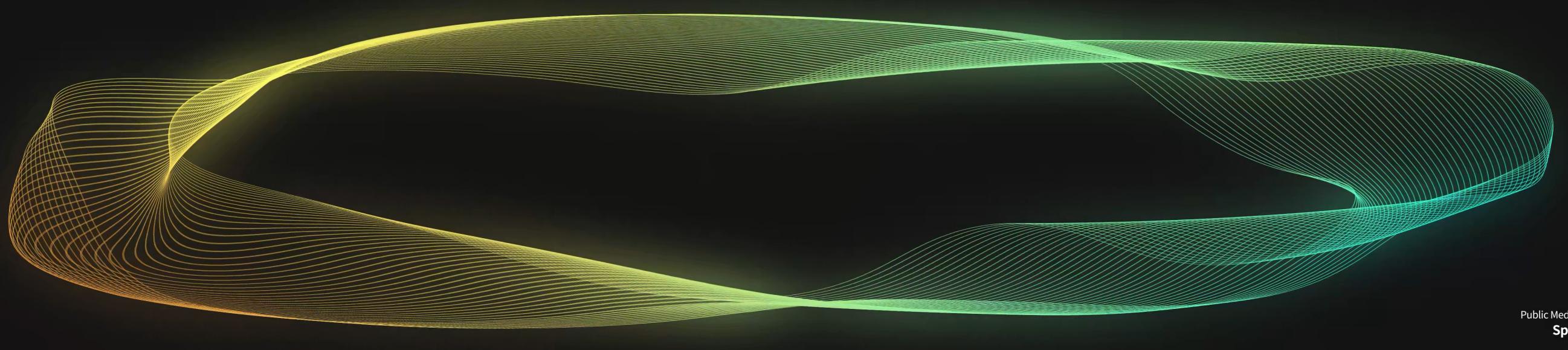
# Yeong



12월 VIDO Report에서 소개해드릴 작가는 '영(Yeong)'입니다. 작가는 점, 선, 면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패턴과 장면들로 2D/3D 작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전공이었던 사진을 기반으로 반영과 대비 등의 효과를 활용한 작품들도 선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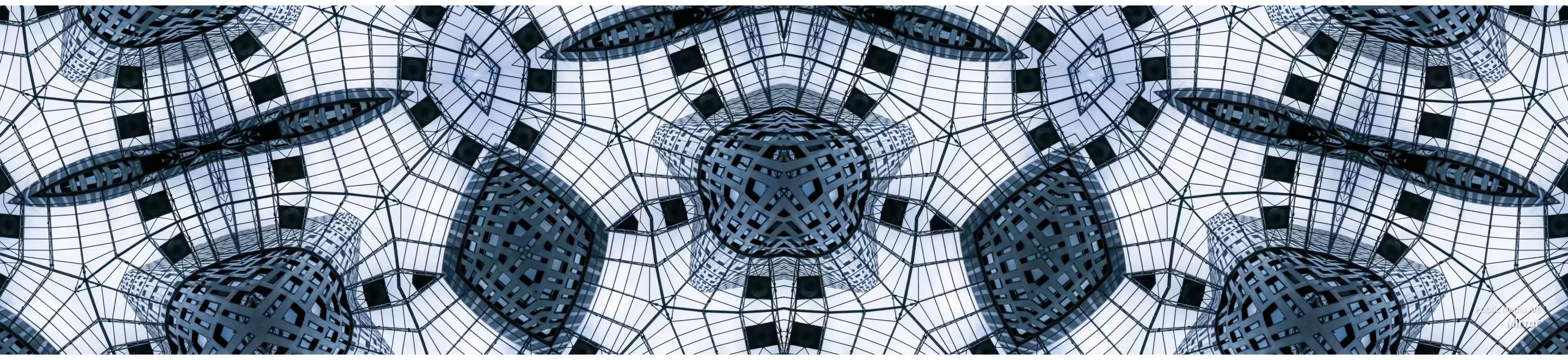


Yeong, <Cross>, 2022, 단채널 영상



Public Media Art  
Spring

Nix Lee, <Current City>, 2021, 단채널 영상



Nix Lee, <Current City>, 2021, 단채널 영상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작품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변화하는 과정의 찰나를 바라보면 다양한 패턴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양한 해석과 상상을 가능케 합니다.

<Cross>(2022)는 짧은 재생시간 동안 선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패턴들의 가능성을 시험한 작업입니다. 바람처럼 흐르며 중심으로 모이는 선들은 겹쳐짐으로써 다양한 면과 패턴을 생성하며, 이는 하나의 응축된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앞의 작품이 선을 통한 패턴의 시험이었다면 <Spring>(2022)은 선들이 구현해내는 면의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놀았던 스프링에서 착안하여, 휘어짐에 따라 바뀌는 면들의 자연스러운 변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irror>(2022)에선 이미지의 반영과 움직임을 이용하여 다양한 시각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빨려들어가는 느낌을 받지만, 양 옆을 기준으로 본다면 패턴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Yeong'의 작업들은 바라보는 기준에 따라 또 다른 장면들을 마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Yeong의 작품들은 다양한 미디어 캔버스에서 전시될 수 있습니다. 카페나 로비,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는 그의 작품은 대중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vido.gallery에 방문하여 Yeong의 더 많은 작품을 확인해보세요!

# Editor's Pick

## Editor's Pick

### 1월 미디어아트 콘텐츠 추천

1월의 주제/테마는 #새로움, #활기참입니다.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하여, 새해를 떠올릴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합류한 작가인 'Kim Jee Hyun'과

'Namecode'의 작품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Public Media Art  
Sea

#### 1. <Sea> - Meg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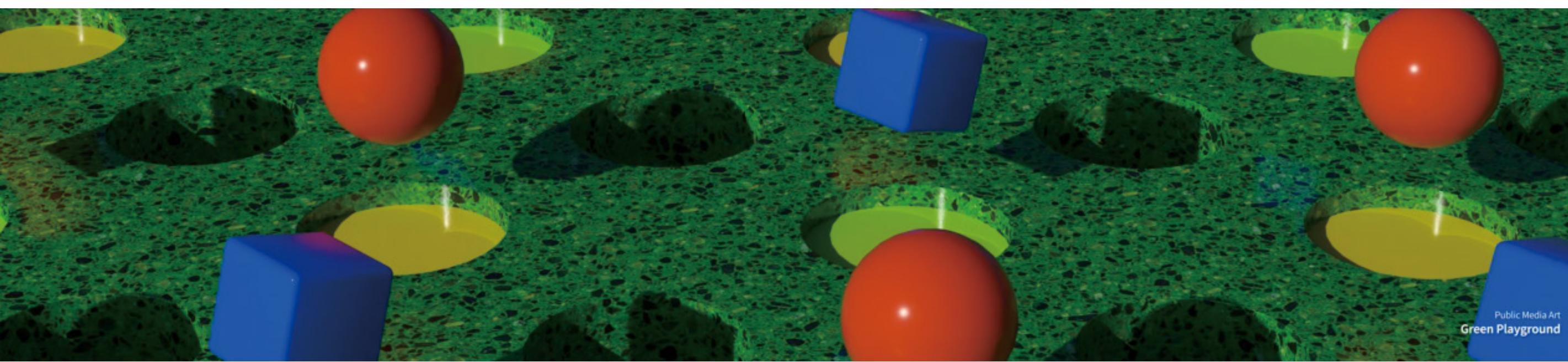
<Sea>는 다양한 형태의 선을 통해 밤바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밤바다에 떠있는 하나의 원은 달의 외형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새벽녘 떠오르는 해의 형태이기도 합니다.



Public Media Art  
Supermassive

#### 2. <Supermassive> - James

<Supermassive>는 여러 개의 폭죽이 터지는 듯한 효과들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신년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활기차고 즐거운 불꽃축제의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Public Media Art  
Green Playgr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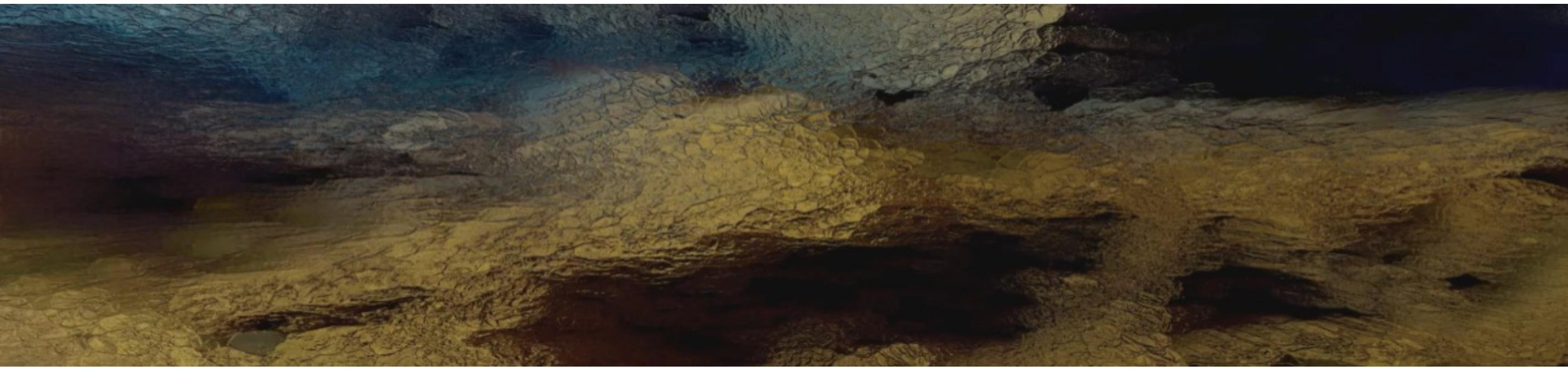
### 3. <Green Playground> - Paige Hwang

<Green Playground>는 반복적이고 가벼운 오브제들의 움직임을 보여줌으로써,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달드리는 리스트들의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채로운 색깔이 담긴 작품을 선정하였습니다.



### 4. <Forest of Stars> - Kim Jee Hyun

작가 김지현은 꿈, 환상, 행복, 즐거움을 주제로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펼쳐냅니다. <Forest of Stars>는 작가가 그려낸 소우주입니다. 이 안에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작가의 고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어있습니다. 동화같은 작품은 잔잔한 움직임을 통해 편안함을 자아냅니다.



### 5. <Entropy of Nature-3> - Namecode

Namecode는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경계 없는 작업들을 하는 디지털 아티스트 그룹입니다. <Entropy of nature> 연작은 자연이 갖는 질서와 동반되는 무질서의 엔트로피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자연스럽고 물 흐르듯 유영하는 물질의 모습은 편안하면서도, 제어할 수 없는 심오함을 드러냅니다.

[VIDEO에선 매달 콜렉터를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추천해드립니다.](#)

[작가 혹은 작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vido.gallery\]\(#\)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Follow us

매달 미디어아트 관련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